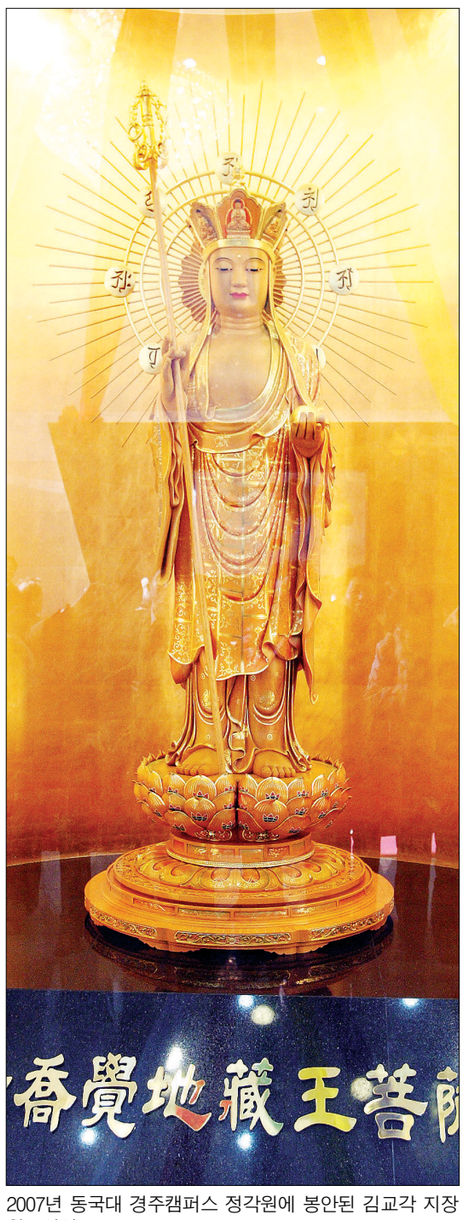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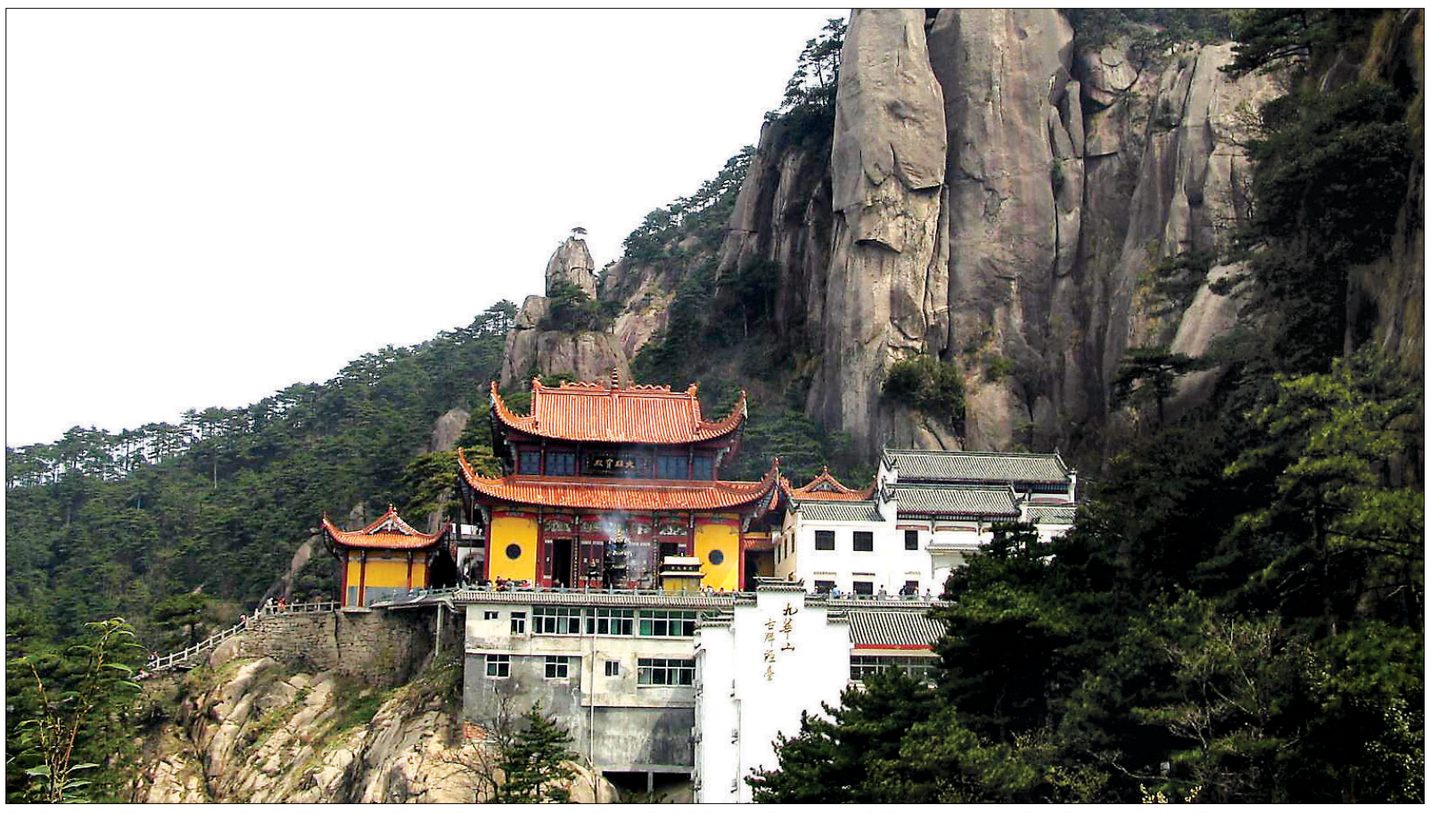
한국의 구법승

12. 지장보살된 신라 왕자 김교각 스님

중국, 지장보살 화신으로 지금도 추앙



2007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에 봉안된 김교각 지장왕보살상.



김교각 스님의 각인이 새겨져 있다는 구화산 고배경대. 이곳에 서서 침식을 잊고 불경을 읽었다는 곳이다. 하도 열중해 경을 읽어 그곳의 돌에 스님의 발자국이 남았다고 한다.

신라왕족 출신 24세 입당
구화산에서 30년 수행정진
높은 덕행으로 신행 이끌어
좌탈입망 후 3년뒤 등신불
남양주 백천사에 기념관 있어



남양주 백천사 지장전. 김교각 스님의 유물은 기념관에 상설 전시돼 있다.

중국에는 4대 불교성지가 있다. 바로 아미산, 오대산, 보타산, 그리고 구화산이다. 그중 구화산은 지장성지로 이름이 높은데 바로 지장왕보살로 불리는 김교각 스님때문이다.

김교각 스님은 신라 성덕왕(698년)의 아들로 당나라 고종 영회 4년 24세에 출가, 흰 개(삽살개) 한 마리를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전해진다. 입당구법(入唐求法)은 그 당시 신라 스님들 대다수가 서원했던 것으로 스님도 그중 하나였다.

김교각 스님은 '쌀 보내준 은혜에 보답함(酬惠米)'이란 시에서 '비단 옷 납의로 갈아입고/불법을 닦으려 바다 건너 구화산에 이르렀네/나 본래 왕자의 몸으로/수행의 길에서 오용지를 만남이여' 라고 자신이 신라의 왕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중국에 건너와 각 지방을 돌며 불법을 구하다 스님은 먼저 오대산에 이르렀다. 그러나 스님이 오대산에 오르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지 오대산은 갑자기 기우뚱 하면서 한 자나 꺼져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이에 오대산이 자기가 머무를 곳이 아님을 안 지장보살 김교각 스님은 다시 사방을 운유하던 중 안휘성 구화산에 이르렀다.

김교각 스님은 구름덮힌 아흔 아홉 봉우리의 구화산 절경에 감복해 산 속으로 들어가 초막을 짓고 수도에 들어갔다. 흐르는 맑은 물과 백토(白土: 먹을 수 있는 흙)로 연명하며 30여년을 수행했다고 한다. 이후 덕 높은 고승이 구화산에 있다는 소문이 퍼져 원근 마을에서 법문을 들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 때, 구화산 기슭에 살고 있던 산주(山主)인 민양화의 외아들 도명이란 청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을 따라 매일 김교각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환희심을 일으킨 도명은 어느 날 부친에게 김교각 스님을 친견할 것을 권하였다.

아들과 함께 김교각 스님을 친견하고 스님의 법문에 깊은 감복을 받은 민양화는 공양을 올리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스님을 초대했다. 공양이 끝나자 민양화는 김교각 스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라며 시주할 뜻을 내비쳤다. 김교각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초막으로서 부족하던 터라 땅을 시주할 것을 요구했다.

김교각 스님은 몸에 걸쳤던 가사를 벗어들고 이 가사로 덮을 만한 땅만 주면 절을 짓고 불법을 더 널리 펴겠다고 했다. 이에 '가사로 덮을 만한 땅이 크면 어느만큼 크랴' 고 생각한 민양화는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런데 김교각 스님이 가사를 하늘로 뿌리자 가사는 마치 날개가 돋히기라도 한 듯 훨훨 구화산 위로 날아올랐다. 그러더니 차츰 커지면서 나중에는 구화산을 몽땅 덮어버렸다. 이에 놀라 입만 벌리고 있던 민양화는 김교각스님의 높은 덕행에 감탄하고나서 자기가 말한대로 한다고 하면서 구화산을 몽땅 김교각 스님에게 시주했다.

'중생을 제도한 뒤에야 보살과를 이루고, 지옥이 비지 않는 한 결코 성불하지 않는다' (度盡衆生 方證菩提 地獄未空 誓不成佛)는 김교각 스님의 지장대원염원에 감화를 받은 민양화는 이어 사재를 털어 사찰을 짓고 자신과 아들 도명은 제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보필하기로 원력을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김교각 스님의 덕행은 당 황제의 귀에 까지 들어갔다. 당 황제는 사찰을 더 크게 중수하고 손수 화성사(化城寺)라는 사명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민양화와 아들 도명을 김교각 스님 등신불의 협시보살로 모셔놓고 그들의 위법구망(爲法軀忘)의 신행심을 기리고 있다.

구화산에는 그에 관한 수많은 일화들이 전해지는데 도당(渡唐)할 때 가져온 신라의 삽살개는 평생 김교각 스님의 수행을 도와 현재 상으로 만들어져 구화산을 지키는 영물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낭랑탑(娘娘塔)으로 현재 기단만이 남아 있는데 김교각 스님이 신라여인을 위해 세워졌다는 애틋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낭랑탑 기단 위에는 명안천이 있는데, 김교각 스님의 어머니가 신라에서 구화산으로 찾아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눈을 상했는데 김교각 스님이 화성사 앞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어머니의 눈을 씻기자 눈이 나았다 한다.

이 우물에 세운 보탑을 후세사람들은 명안천이라고 명명했다. 또한 이성전(二聖殿)은 김교각의 외삼촌으로서 그를 데리러 왔다가 도리어 그에게 감화된 소우(昭佑) 소보(昭保) 스님의 덕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이처럼 멀리 신라에서부터 중국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교화해오던 김교각 스님은 99세인 794년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인사를 한 뒤 입적을 하였다.

김교각 스님은 자신의 시신을 석함에 넣고 3년 후에도 썩지 않으면 등신불로 만들라는 유언을 남겼다. 열반에 들 때가 온 것을 안 김교각 스님은 어느 날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앉아 염불을 하며 조용히 좌탈입망(座脫入忘)을 했다.

〈당 고승전〉을 보면 김교각 스님이 입적을 하자 산이 울리고 돌이 굴러 떨어졌으며 대지에 신광이 번쩍이고 뭇 새들이 구슬피 울었으며 화성사의 종은 아무리 쳐도 종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교각 스님 입적 후 3년 뒤 제자들이 항아리 뚜껑을 열어 보니 김교각 스님은 생전 그대로의 모습이었고 근골을 건드리자 쇠사슬 소리가 났다.

불경에 나오는 지장보살에 관한 내용과 같은 현상이므로 그 때서야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 화현으로 여긴 화성사 스님들은 스님의 몸에 금분을 입혀 등신불로 육신보전탑에 모시고 깊이 숭앙하게 되었다. 명 · 청대에는 구화산에 사찰이 360여 곳, 승려가 5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스님의 등신불은 현재 주화산(구화산) 육신보탑(月身寶塔)에 모셔져 있으며 화성사는 구화산 역사박물관을 겸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그림을 벽화로 전하고 있다.

김교각 스님의 행적은 813년 동시대 지주시(池州市) 청양현 사람인 비관경(費冠卿)이 스님의 입적 후 19년 뒤에 쓴 주화산 화성사기(九華山 化城寺記)와 이용(李庸)이 편찬한 주화산지(九華山志) 등에 기록돼 있다. 김교각 스님은 신라 어느 왕의 자손이라는 기록은 없으나 비관경의 기록에 있는 출생 연대 및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유추해보면 스님은 서기 697년 신라 32대 효소왕 4년 서라벌 궁궐에서 태어난 김중경(重慶), 부친은 후에 제33대 성덕왕이 된 신문왕의 둘째아들 흥광대군 효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김교각 스님을 김지장(金地藏)으로 존칭하며 해마다 김교각 스님이 입적한(음 7월 30일) 기일을 택해 한 달간 추모제를 열고 있다. 현재 구화산에는 94곳의 사찰과 1만 여기의 불상이 있다. 그리고 700여 스님들이 수행하며 지장성지로서 김교각 스님의 지장보살 대비원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백천사 주지 무구 스님이 김교각 스님 탄신 1300년인 1997년 서울민속박물관과 전국에서 대규모 순회 전시회를 열었으며 구화산 화성사와의 교류로 남양주 백천사에 연건평 140평의 기념관을 건립했다.

이 곳에는 스님이 생존 당시 쓴 경전과 목탁을 비롯해 남긴 유묵과 족적, 신발, 모자 등 2백여 점이 전시돼 있다.

이런 교류를 이어가 한국와 중국 불교계는 한중수교 15주년인 2007년을 기념해 김교각 스님 입상을 좌대와 불신, 광배를 포함 2.5m 규모로 제작해 한국에 봉안했다.

2007년 11월 구화산 육신보탑(月身寶塔)에서 '김교각 지장보살 한국봉안' 을 위한 중국정부의 공송(恭送)법회가 봉행됐으며 서울 봉은사에서 한중합동법회를 열고 고불식을 가졌다. 이어 김교각 스님의 고향인 경주의 동국대 캠퍼스 정각원에 모셔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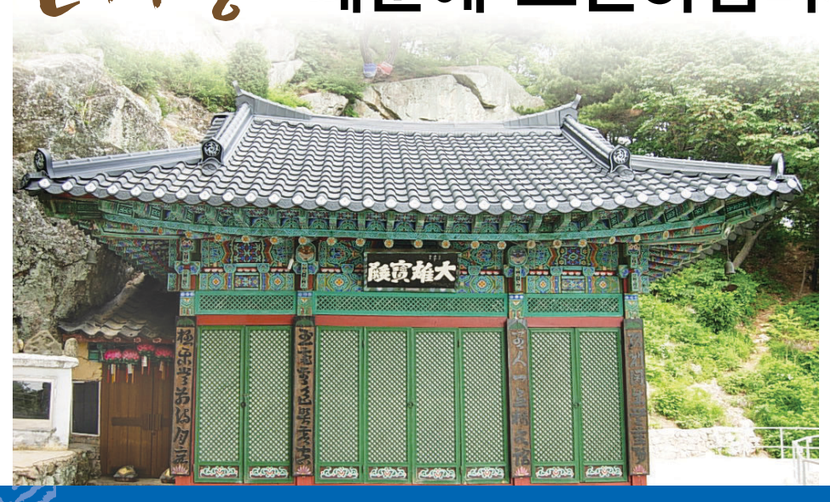




ㅣ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ㅣ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